



# 기본소득의 실체

---

전삼현(숭실대 법학과 교수)

# 기본소득 불 지폈다.

통합당 **김종인** 비대위원장이 <2020년 6월 3일 국회 의원회관>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모임 발언



기본소득 문제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”이후 여야 대권 주자들이 연이어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 표명 (**홍준표/이재명/박원순/안철수** 등)



# 정치권의 시각(찬성)

---

**김종인**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

- 반대를 위한 반대는 더는 하지 않겠다
-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는 자유인데, 법 앞에 평등 같은 형식적 자유는 의미가 없다
- 최종적으로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 시키느냐가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 (초선의원 모임에서)
- 4.15 총선 당시 코로나 사태 이유로 대학생 1인당 100 만원씩 특별재난장학금 지급 공약
- 기본소득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.
- 공감대가 있는 것과 가능하게 하는 자원 확보는 별개 문제

# 정치권의 시각(찬성)

---

**이재명** 경기지사 (6월 6일 페이스북, 6/18 신동아 기사, 증세없이 50만원)

- 소비 절벽으로 수요 공급 균형이 무너져 경기 불황이 구조화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 정책, 다음 대선의 핵심 의제

**안철수** 국민의당 대표 (6월 4일)

- 어려운 계층에 우선 배분돼야 한다는 개념에 따라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

**용혜인** 기본소득당 의원 (6월 7일 기자회견, 60만원)

- 4차 산업혁명, 부의 극심한 편중, 일자리 소멸, 생계소득의 소실을 가져오는 산업구조의 격변 속에서 기본소득제가 필요

# 정치권의 시각(반대)

**홍준표** 국회의원 (6월 8일 페이스북)

-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
- 세금의 파격적 인상 국민이 수용, 현 복지체계의 전면적으로 재조정 필요

**박원순** 서울시장 (6월 7일 페이스북)

- 실직자도 매월 5만원, 대기업 정규직도 매월 5만원을 지급받는 제도

- 기본소득보다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훨씬 더 정의롭다

- 모든 시민에게 현금지급, 얼핏 공평해 보이지만 실제 재분배 효과 감소

**홍남기** 경제부총리 (6월 16일)

- 지구상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가 없다

- 복지는 어려운 계층을 대상, 훨씬 효과적

# 국민들의 생각은 ?

<리얼미터, 6월 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>

-찬성 48.6% (최소한의 생계 보장) / 반대 42.8% (국가재정부담과 세금 증가)

**스위스 기본소득 주요내용**

- 성인 2500스위스프랑(300만원 상당)
- 미성년자 650스위스프랑(78만원 상당)  
매달 조건 없이 지급

2013년, 13만여명 서명받아 헌법개정 국민투표 발의

2015년, 스위스연방정부와 연방의회 반대의견 공표

2016년 6월5일, 국민투표에서 부결

<참고로 2016년 스위스 (찬성: 23.1%, 반대:76.9%)>

# 기본소득 관련 키워드

- 물질적 자유 (김종인)

- 소비 절벽 (이재명)

- 어려운 계층 (안철수)

- 사회주의 배급제도 (홍준표)

- 복지체계 전면 재수정 (홍준표)

- 전국민 고용보험제 (박원순)

- 재분배 효과 감소 (박원순)

- 불평등 강화 (박원순)

- 4차 산업혁명 (용혜인)

- 부의 극심한 편중 (용혜인)

- 일자리 소멸 (용혜인)

- 생계소득의 소실 (용혜인)

- 지구상에 기본소득제 시행 국가 없다 (홍남기)

# 기본소득이란 ?

---

## ▶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개념 정의

-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(정치공동체)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

-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

-2016년 스위스 기본소득안도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 대상 매달 300만원, 청소년 어린이에게 매달 78만원 지급 안과 동일



# 쟁점

---

## ▶ 현행 복지제도와와의 관계

- 현행 복지제도를 근본적으로 대체하는 것인가 ?

- 현행 복지제도에 추가된 또 하나의 복지제도인가 ?

## ▶ 보수/우파의 이념적 가치와 부합하는가 ?

## ▶ 기존 복지제도의 전면개편 가능한가 ?

# 기본소득은 복지정책 ?

## ▶ 복지정책

- 자본주의 성장으로 빈곤의 퇴치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등을 국가차원에서 다루는 정책

- 복지 방법 관련 선별적/보편적 복지론 대립

## ▶ 선별적 복지론

- 빈곤층 중심의 저비용 복지, 명분과 복지재원 조달 면에서 장점

- 조사관련 고비용 및 비 수혜자의 반발이 단점

## ▶ 보편적 복지

- 무조건 국민 전체가 동등한 복지 혜택 받는 **고비용 복지**

- 복지서비스 조달의 편의성/효율성확보라는 장점

- 공유지의 비극/고비용 단점

**▶ 보편적 복지론적 관점, 기본소득은 복지정책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음**

# 자유주의적 기본소득제

▶ 기본소득제는 크게 **음의 소득세**(NIT: Negative Income Tax)와 **보편적 기본소득제**(UBI: Universal Basic Income)로 구분

▶ **밀톤 프리드먼(1962)과 제임스 토빈(1966)**

- 복지제도 비효율성 제거, 빈곤퇴치, 근로유인 확대 목적, 음의 소득세 제안

- **프리드먼**은 <자본주의와 자유>에서 면세점 이하의 빈곤층에게 단일세율로 부과되는 음의 소득세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설계

- **토빈**은 면세점 이상 소득에 적용되는 양의 소득세가 현행 소득세보다 클 경우 근로역유인 효과 개선위해 양의 소득세를 현행 소득세율로 인하

- **토빈**의 NIT만이 현행 복지제도의 일부 대체로 자원충당 가능

**(조경엽, 기본소득제가 소득재분배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, 한국경제연구원, 2017년, 5면)**

# 사회주의적 기본소득제

▶ 진보·좌파들은 '아무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소득을 지급'하는 머레이(Murray)와 스페인(Spain) 식의 UBI 제도를 선호하고 있음

- UBI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정소득을 지급

▶ 머레이는 중위소득의 50%에 달하는 소득을 21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 제안

- 근로 유인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 완화위해 일정소득이 넘는 가구에게는 지원금의 일정비율의 세금공제 후 보조금 지급

▶ 스페인식은 중위소득의 50%에 달하는 소득을 18세 이상에게 지급

- 모든 소득계층에게 동일한 소득 보장

- 현행 소득세 폐지하고 단일세(flat tax)로 전환하는 세제개혁 병행

# 소득1분위 (하위20%) 기준 연간기본소득액 추정

(조경엽, 2017, 7면)

	프리트먼	토빈	머레이	스페인
4인 가구 1분위 기준	1,928.1만 원	642.7만 원	2,534만 원	2,930만원 (세금 259.5 만원)
총 필요재원	75조9157억 원	50조615억원	266조3665억원	341조4596억원 (세금 158조9783억 원)

# 기존복지제도의 **전면개편** 가능성

---

▶ 보건복지부는 5월 14일 ‘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’ 를 개정하여 발간.

▶ 23개 중앙행정기관, 400여 개 복지서비스

-현행 복지제도를 전면 대체하는 것은 난제 예상

-정치권의 포퓰리즘 경향을 보면 기본소득제는 현행 복지제도에 추가된 또 하나의 복지제도  
일 가능성이 높음

# 소결

▶ 현재 정치권의 기본소득제 언급은 구체적인 실체가 없음

▶ AI, 로봇 등의 등장으로 일자리 감소 시 기본소득제 논란은 피해 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

▶ 기본소득당의 안대로 국민 1인당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 (5,178만명 x 720만원) 대략 **매년 373조원**의 추가 기본소득지급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

▶ 현행 복지정책을 전면 재조정하고 기본소득제의 실체를 정하는 것이 보수/우파의 이념적 가치에 부합 (**제임스 토빈 안이 적합**)

▶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종 사회수혜금지급 방식의 대안으로 제시된 **안심소득제**(수혜금 중 일정비율을 근로성과급으로 지급)를 응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봄.